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1/0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 51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 90:1-2

1 오, 주님! 주님은 대대로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2 산들이 생기기 전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내시기 전 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출 3:14

14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는 -이다’이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여라.”

요 8:58, 28

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라고 하시니,

28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후에야, 여러분은 내가 ‘나는 -이다’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요 1:18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첫 번째 결정(結晶)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독생자(1:18)를 가리킨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분, 곧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출 3:14-15, 요 8:24, 28, 58)으로 계시한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허무 중의 허무이다. 그분만이 실재이시고, ‘나는 -이다’이신 분이시며,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 그리스도는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다(히 7:3).

요한복음 1 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고, 이 서문의 주된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 곧 비밀스러우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시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 장은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섯 가지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 준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 장, 15-1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 과거를 말하는데, 그것은 ‘태초에’라는 말이 영원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51 절은 영원 미래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현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미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영원의 이 두 부분을 합치면 영원 전체를 갖게 된다.

영원 과거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셨다. 영원 과거에 그분은 단지 하나님이셨고 신성만을 갖고 계셨다. 말씀께서 아직 육체가 되지 않으셨으므로,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고 인성도 없으셨다.

영원 미래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다. ... 영원 과거에 그분은 인성이 없이 단지 신성하기만 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영원 미래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써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분이시며, 신성뿐 아니라 인성도 가지실 것이다. 그분은 두 가지 본성과 두 가지 본질과 두 가지 실질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실 것이다.

영원 과거에 인성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영원 미래에 어떻게 그분의 거처인 인성을 가지실 수 있는가? ... 영원의 이 두 부분 사이에는 시간의 다리가 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을 세우셨지만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다. ...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 그분은 끝마치신 일을 다만 누리실 것이다. 영원 과거에 그분은 계획하셨고, 영원 미래에는 누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루셔야 할 모든 것을 시간의 다리 위에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영원의 첫 부분에서 시작하여 시간의 다리를 통과해 영원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경륜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자동차를 운전하시어 시간의 다리를 건너심으로써 필요한 모든 일이 완성된다. 일단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하셔서 시간의 다리를 건너 영원 미래로 들어가시면,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것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5, 79-80, 84 쪽)

우리는 이 위대하고 역사적인 다섯 가지 일들을 다섯 단어, 곧 ‘창조’, ‘육체 되심’, ‘어린양’, ‘그 영’, ‘사다리’로 기억할 수 있다. 요한복음 1 장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사다리가신 그분으로 끝맺는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조를 통해, 육체 되심을 통해, 어린양이 되신 것을 통해, 그 영이 되신 것을 통해, 사다리가신 것을 통해 말씀하신다. 사다리가 있으려면 기반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되시는 기반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다. 베델의 실재는 교회이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새 예루살렘이다.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이 다섯 가지 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1) 창조를 이루신 창조주로서, (2) 육체 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람으로서, (3) 구속을 이루신 어린양으로서, (4) 변화를 이루시는 기쁨 부으시는 영으로서, (5)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땅을 하늘에 연결하시는 사다리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정의하시고 설명하시며 표현하신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 장, 18-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1/07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3

3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롬 1:20

20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 19:1-3

1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네.
2 낮은 낮에게 말을 쏟아 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네.
3 말이 없고 이야기가 없으며 그 소리도 들리지 않으나

히 11:3

3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골 1:15-17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 창공(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시 19:1),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분명히 보게 되어 있다’(롬 1:20).(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 장, 19 쪽)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성을 표현하는 신성한 특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우주 가운데 빛이 가득한 것은 빛이 신성한 특성, 곧 신성한 본성의 신성한 속성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약 1:17). 아름다움과 생명 또한 그러하다.(롬 1:20 각주 2)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1 장 20 절에 따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더하여 그분께서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은 그분에 관하여 증언한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하여 그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창조물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해 준다. 창조된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소리 없이 말한다. 시편 19 편 1 절부터 3 절까지는 …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것들이 하는 말은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되고 확실한 사실을 전달한다. 그것들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 집을 지은 벽돌공에 대해 말해 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식탁과 의자는 그것들을 만든 목수에 대해 말해 준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 있는 하늘과 우리 발아래 있는 땅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준다. 심지어 모래 한 알이나 꽃 한 송이나 식물 하나까지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준다. … 사람이 창조된 것들을 보며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4 편 1 절은 “어리석은 이는 마음속으로 / ‘하나님은 없다.’ 하네.”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14 장 17 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결실하는 계절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에서 산출된 열매는 모두 비를 내려 주시고 결실하는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준다.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를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 우주 안에 있는 법칙들이 조금도 어김없다는 사실과 만물이 잘 조화되어 있고 그것들 가운데 적절한 질서가 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입증한다. 증기선이 물길을 따라 항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배를 조종하는 선장이 있기 때문이고, 기계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자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주만큼 거대한 ‘기계’가 여러 법칙에 따라 작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로지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 장 26 절과 27 절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라고 말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뿐 아니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그 이유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셨다’(위트니스 리 전집, 1932-1949 년, 1 권, 영문판, 71-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 장

1/08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4, 16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마 17:2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벧후 1:17-18

17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18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 40:5

5 그때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리니 이는 여호와와 입이 말한 까닭이라.”

갈 4:4-5

4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 45:2

2 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수려하시며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기에 하나님은 왕께 영원히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체 되심을 통해 계시하신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 중 하나가 되심으로(골 1:15)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신 것과,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연합하신 것과,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그분의 인간 미덕을 통하여 신성한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표현하신다는 것이다. …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 역시 동일하다. 우리도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이들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장, 20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육체가 되시기 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비밀스럽고 ...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접촉할 수 없는 분이셨다. 육체가 되심으로서는 그분은 견고한 형태를 지닌, 실질적이며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다. ... 그분은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요 1:14)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질 수도 있었다.

비록 그분은 육체가 되심으로서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분께서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셨다'고 말한다. ...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을 때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보고 만졌을 뿐 아니라 그분을 누리기도 했다. ...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으로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달콤한 누림을 제공하심으로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은 단지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분의 임재는 얼마나 즐거운 것이었는가! 그분의 임재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 아무도 그분의 매력적인 임재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이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방식이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다. ... 구약의 장막은 참장막, 곧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의 예표이자 그림자이자 예시였다. ...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에게 모셔 왔다.

어느 날, 그분은 세 제자와 함께 산 위에 계실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마 17:2, 벰후 1:17-18).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나오셨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그분의 육체에 의해 숨겨져 계셨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곳 산 위에서 나타나셨다.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을 때 그분께서 은혜가 충만하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있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이것은 정의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누림을 위한 충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온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안식, 위로, 능력, 힘, 빛, 생명, 의, 거룩함 및 그 밖의 신성한 속성들 모두를 포함한다. 이것이 우리의 누림을 위한 은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다만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마다 그분의 온 존재의 충만을 누린다(요 1:16). ... 신격의 충만, 즉 하나님의 온 존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수록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된다.

하나님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은혜뿐 아니라 실재도 갖게 된다. ...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누리고 실재를 깨닫게 된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신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실재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실재화 되신 하나님이다.

은혜와 실재는 둘 다 예수님과 함께 왔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한다. ...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누렸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생명, 빛, 위로, 안식, 인내, 겸손 등 많은 것이심을 깨달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재화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3, 47-48, 50, 53-58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3

1/09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 1:29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히 9:26, 28

26 만일 그렇게 하셔야 했다면, 그분은 창세 이후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어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들이 종결될 때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28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한 번 드러지셨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고전 15:3

3 내가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나도 전해 받았던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히 10:5, 7, 9-10

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7 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오, 하나님!’ ”

9 그 후에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을 폐지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10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만에 영원히 드러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골 1:20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 장 3 절은 시간이 시작될 때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 우리는 또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이 되시어(요 1:14) 사람의 살과 피에 참여하신 분(히 2:14), 곧 육체 되신

그리스도를 본다. 이 육체 되심은 잃어버린 우주를 구속하심으로 신약 시대를 이끌어 오기 위한 것이었다. 육체가 되신 하나님께는 피가 있으시다. 사도행전 20 장 28 절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주를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살과 피에 참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인 사탄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함으로 하늘들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오염되었다. 이 첫 번째 반역자로 인해 온 우주는 잃어버린 바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들에 있는 만물을 구속하셔야 했다(골 1:20).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어린양이 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에 따른 절차인 그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으로 그분의 구속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 장, 16, 2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심으로 우주를 구속하셨다.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시작되었다. ... 우주는 창조로 말미암아 생겨났지만, 이 우주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지니신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은 잃어버린 우주를 구속하시어 새로운 시대, 곧 신약 시대로 되돌리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는 또한 신약을 위해 법리적으로 세상(인류)의 죄를 없애시려고 어린양이 되신 것(요 1:29, 36)에서도 계시되신다. 이것은 우주의 역사에서 세 번째 위대한 사건이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여기셨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우주를 구속하시려는 목적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로 가셔서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 장, 17 쪽)

요한복음 1 장 29 절에 따르면,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해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라고 선포했다. ... 29 절에 있는 ‘세상의’라는 말은 사실상 ‘인류에게서’라는 뜻이다. 사탄이 인류 안으로 죄를 주입했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인류에게서 죄를 없애셨다. 그리스도는 죄(고후 5:21, 히 9:26)를 처리하시고 또한 죄들(고전 15:3, 뱀전 2:24, 히 9:28)을 처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구약의 모든 제물의 성취가 되신, 육체 안에 계신 말씀의 상징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물의 총체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속죄제물이실 뿐 아니라 속건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요제물, 거제물, 자원 제물, 전제물이시다. 모든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얻으며, 이 구속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다.

모든 제물의 성취이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요 3:14-15, 뱀후 1:4).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양을 통해 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권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온 존재를 누릴 수 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76, 14-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2 장

1/10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 1:32

32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 1:42

42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일 2:20, 27

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빌 4:4, 6-7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영이 되심으로(고전 15:45), 더 전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요한복음 1 장은 먼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그런 다음 이 말씀께서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어서 말씀은 육체 되심을 통해 그리고 어린양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 전진하여 말씀하신다. 우주의 역사에서 네 번째 위대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되신 것인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 장 32 절은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어린 양 위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어린양이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비둘기, 곧 그 영이 되셨다. 요한복음 1 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돌들로 변화시켜(32-42 절) 신약을 위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집(벧엘, 51 절)을 건축하시기 위해 그 영이 되신 것을 통해 계시되신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 장, 20, 1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구속받을 뿐 아니라 변화되어야 한다. 단지 구속받은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의 첫 단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즉 다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지어졌을지라도, 거듭나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께 속한 어떤 참된 것도 없다. 우리가 거듭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물인 그분의 집을 위한 돌들로 변화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인 벧엘은 먼저는 교회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 장, 18 쪽)

헬라이어 접두사인 ‘적(anti)’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의미는 ‘반대하는’이고, 둘째 의미는 ‘대신하거나 대치하는’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또한 다른 무언가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한 면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무언가를 갖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음을 본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부인할 때마다 그는 자동적으로 다른 무언가로 그리스도를 대치할 것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것 둘 다이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치하는 것에 대한 예로 현대주의자들을 들 수 있다. 현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이심을 부인한다. ... 오히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고 또 그 가르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순교자이셨다. 현대주의자들은 드러내 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자이심을 부인한다.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이러한 방면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순교자로 구속자를 대치한다. 이런 식으로 현대주의자들은 구속자 대신 순교자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른 무언가를 갖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부인한 것의 결과이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떤 부분이나 방면이나 항목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떤 방면이라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떤 방면을 부인하고, 그 결과 다른 무언가로 그 방면을 대치할 수도 있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1, 298-29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4;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4, 31

1/11 토요일

아침의 누림

창 28:12

12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요 1:51

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엡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벤엘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받고 변화된 그분의 선민으로 구성된 집을 이 땅에서 연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집을 얻으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땅에 이끌어 오시고 땅을 하늘과 연결하심으로 이 둘을 영원히 하나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고, 육체가 되시고, 어린양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사다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가장 위대하고 역사적인 이 다섯 가지 일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가 말씀이고, 육체 되심이 말씀이고, 어린양이 말씀이고, 그 영이 말씀이고, 사다리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 장, 20-2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구속 다음에 기름부음이 나온다. 기름부음은 어린양의 연장인 비둘기이신 그 영을 통해 온다. ... 비둘기 곧 그 영은 창조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타고난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변화된 사람을 연결하신다. 우리는 세 가지 상태 중 하나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창조된 사람일 수 있다. 또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너무 타고난 사람이어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또는 변화된 사람이지만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개인주의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가 합당하게 변화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연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있고, 둘째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 건축을 위해 연결될 필요가 있다. 비둘기 곧 그 영은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연결하신다. 우리 모두는 비둘기 곧 그 영의 기름부음 아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분은 커다란 독수리가 아니라 조그마한 비둘기,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고전 15:45). 이 조그마한 비둘기가 작은 어린양의 연장이다. 어린양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한 비둘기가 일할 차례이다. 조그마한 비둘기, 곧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영께서 매일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꾸짖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만지신다. ...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는 안식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그마한 비둘기가 항상 우리를 괴롭힌다. 이 조그마한 비둘기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 기름부음이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는 과정 아래 있다. ...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건축을 위해 변화되도록 정하셨다.

창조, 육체 되심, 구속, 기름부음 다음에는 건축이 있다. 이 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거처를 건축하고 계시고, 변화된 사람들을 돌로 사용하고 계신다(요 1:42). 우리가 변화의 일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건축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아주 많은 돌이 아닌 하나의 집이 필요하시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로 건축된 집, 즉 베넬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이스라엘 나라가 준비되고 교회가 건축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을 보라. 거의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스라엘과 부합될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건축물이 필요하다. 이 건축물은 그분께서 이 땅을 취하시도록 하는 디딤돌, 교두보일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의 연합일 것이다. ...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물인 상호 거처이다. 이 건축물에 의해 야곱의 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건축물은 시간의 다리를 끝내고 축복된 영원 미래를 이끌어 올 것이다. 우리는 이 건축물을 위해 있어야 하고, 이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5, 89-9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5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메시지 1-2

찬송: 187 (英) 주 사랑 내게 (中:152)

- 1 주 사랑은 우리에게 그 풍성 분량 말해 주의 부-요함 무한-함 영 안에서 누림- 돼.
- 2 태초에 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육체 되-어서 사시-며 하나님 말해 냈-네.
- 3 하나님 장막이신 주 그 영광 나타내네 참 성전-이신 주 안-에 하나님 거하시-네.
- 6 모두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모두 안-에서 모두-인 하나님-사람일-세.
- 14 주 우릴 구속해주신 흠 없으신 어린양 우리에게- 생명 주-셔 거듭나게 하시-네.
- 24 주 우리 신랑 되시니 우리는 주의 신부 영 안에- 주와 한 몸- 돼 풍성한 사랑 누-려.
- 25 오 야곱이 본 사다리 하늘을 여시는 주 우린 하-나님 성전- 돼 이 땅과 하늘 잇-네.
- 26 오 주는 우릴 채우는 위대한 "나는...이다" 모든 것-이신 주 누-려 하나님 목적 이-뤘.

1/12 주일

아침의 누림

요 1:1, 3-5, 14

-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 3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 5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벤전 2:4-7

- 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 6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 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